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25.(수) 06:00 (2026. 11. 25.(수) 석간)

< 2026년 사업주훈련 우수사례 경진대회 2편 >

'삼우전자정밀' 중소기업(단독·공동) 부문 대상 수상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활용, 현장 안전 강화·자립형 안전관리 실현
- '26년 사업주훈련 우수사례 경진대회 중소기업(단독·공동) 부문 대상 수상

삼우전자정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병훈, 이하 '공단')의 '체계적 현장훈련(S-OJT)' 등에 참여해 작업자가 자신의 공정을 직접 점검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역량을 키우고 있다.

직원들은 유해·위험 요인 50건을 발굴·조치했으며, 회사는 자체 역량으로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는 등 자립형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훈련으로 확보한 역량은 비용 절감으로도 이어졌다. 삼우전자정밀㈜은 2026년 3월 ISO 45001 인증을 취득했으며, 자체 역량으로 업무를 수행해 외부 인증 및 컨설팅 비용 약 2,500만 원을 절감했다.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한 12명도 각 부문의 안전 활동을 이끄는 인력으로 성장했다.

삼우전자정밀㈜ 송수진 과장은 "각 공정의 작업자가 위험 요인 50건을 찾고 체크시트와 안전 수칙까지 직접 만들면서 안전이 '관리부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라는 인식도 자리 잡았다"라며, "앞으로는 정기 점검과 재훈련을 이어가고, SAFE-T 모델을 협력업체와 지역 중소기업에도 공유해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성과로 삼우전자정밀㈜은 '2026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우수사례 경진대회' 중소기업(단독·공동) 부문 대상인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앞으로 외주·도급업체까지 위험성 평가와 안전 훈련을 확대하고, SAFE-T 모델을 지역 중소기업과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기업과 근로자의 역량 향상을 위해 다양한 훈련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주가 실시한 훈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중소기업의 직무에 맞춘 훈련과 과정 개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체계적 현장훈련(S-OJT)' △절차 간소화와 유연한 훈련 운영을 돕는 '기업훈련 탄력 운영제' △중소기업의 고품질 훈련 참여를 위해 훈련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인재키움 프리미엄' △개인별로 필요한 교육 콘텐츠를 선택·학습할 수 있는 구독형 훈련 제도인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가 대표적이다.

자세한 사업별 지원 내용과 참여 방법은 HRD4U(www.hrd4u.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2026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소개자료
2. 삼우전자정밀 사업주훈련 우수사례

담당 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지원부	책임자	부장	박성희 (052-714-8271)
		담당자	주임	정준원 (052-714-828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 **2026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소개자료**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정부 지원 훈련이 있었다고?!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알아보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업 대표님이 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진행하시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드려요!

기업훈련 탄력운영제

기업이 스스로 운영하는 교육훈련을 간편하게! 과정 승인 간편화, 1시간 훈련, 비대면 쌍방향 훈련 등을 활용해서 더 쉽게 운영해보세요!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

이제는 디지털 시대! 고품질 콘텐츠로 구성된 원격훈련 수강 플랫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교육을 수강 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 인재키움 프리미엄 훈련

90%

비용 부담 없는 교육, 언제나 어디서나 참여하기 쉬운 훈련
(납부한 훈련비 금액의 90% 이상을 지원해드립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의 훈련을 부담없이 제공해보세요!)



붙임 2 **삼우전자정밀 사업주훈련 우수사례**

삼우전자정밀㈜의 안전관리 역할은 관리부에 집중돼 있었다. 전기차 충전용 커플러와 커넥터 등을 생산하며 설비 가동과 납땜·용접·레이저 가공 등이 이뤄졌지만, 관리는 서류 정비와 사후 조치에 가까웠다.

해외 고객사의 안전경영 심사 요구와 ISO 45001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작업자의 위험 예방 역량을 높이는 일이 과제가 됐다.

회사는 공단의 훈련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활용했다. 2023년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으로 독서토론과 스피치 교육을 진행하고, 2024년에는 직무 전문가를 사내강사로 양성했다. 2025년에는 S-OJT와 LEAN 생산혁신, ISO 45001 안전보건경영 실무 교육을 연계해 학습을 현장 개선으로 연결했다.

실무 훈련은 3단계로 운영했다. S-OJT에서 조직과 책임, 위험성 평가, 비상대응 절차 등을 정비한 뒤 LEAN 생산혁신 교육으로 낭비와 위험 요소를 살폈다. ISO 45001 실무 교육에서는 관련 법규와 위험성 평가 방법을 익혀 관리체계의 완성도를 높였다.

실습에는 실제 설비와 작업 동선, 보호구 착용 상태, 화학물질 취급 과정 등을 활용했다. 분임조별 소그룹 훈련으로 생산 차질을 줄이고, 작업자가 자신의 공정을 점검해 발견한 문제를 현장에서 개선하도록 했다.

점검 범위는 정규 생산공정에서 비정기 작업과 사무실의 사각지대까지 넓혔다. 각 구역 담당자는 위험 요인 발굴에 그치지 않고 체크시트와 안전 수칙을 직접 작성했다. 부문별 체크시트에는 7개 영역, 21개 점검 항목을 반영해 동일한 기준으로 위험을 확인하도록 했다.

회사는 이 과정을 자체 역량 조성, 현장 위험성 평가, 완성도 제고, 외부 인증 검증, 확산 지속의 5단계 'SAFE-T 모델'로 체계화했다. 직원이 작성한 점검 기준과 안전 수칙을 활용하며 교육 결과를 일상적인 안전관리 활동으로 정착시켰다.